

# “어찌 하늘에 삼광 가운데 하나가 결여될 수 있겠는가?”

## <44> 류밀(劉謚) 거사의 <삼교평심론(三教平心論)>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이허론(夷夏論)’에 바탕을 둔 중국인들의 거부감은 상당했다. 그에 따라 역대로 중국불교인들은 본토의 사상인 유·도 양가와 결코 차별이 없음을 강조해 불교 수용에 따른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동한(東漢)의 모용(牟融) 거사의 <모자이허론(牟子理惑論)>으로부터 남북조 시기 양무제(梁武帝)의 ‘삼교동원설(三教同源說)’, 수(隋)·당(唐) 이사겸(李師謙)의 <내덕론(內德論)>, 왕통(王通)의 <중설(中說)> 등에 나타나는 ‘삼교일치론’, 송대 장상영(張商英) 거사의 <호법론(護法論)> 등 중국불교의 역사는 가히 불교를 중심으로 한 유·도 양가를 포섭해 ‘삼교일치’를 제창하고자 했던 여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삼교일치’를 표방한 저작으로 이사겸 거사의 <내덕론>, 장상영 거사의 <호법론>, 그리고 류밀 거사의 <삼교평심론> <대정장> 제52권에 수록을 꼽는다.

<삼교평심론>은 온전하게 전해지지않, 아쉽게도 그를 찬술한 유밀 거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폐재청의 <거사전>에는 다만 <삼교평심론>을 찬술했다는 거사가 이순보(李純甫: 1185~1231) 거사의 전기에 보이고, <불법금량판>

됐으며, 한(漢) 명제(明帝)가 꿈에 금인(金人: 佛)을 봄으로부터 불교가 시작됐다. 이것이 중국에 삼교가 있게 된 순서이다. 대체로 유교는 바름(正)으로써 가르침을 베풀고, 도교는 높음(尊)으로써 가르침을 베풀며, 불교는 큼(大)으로써 가르침을 베풀는다. 그 가르침을 살펴보건대, 삼교는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죽임을 미워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인(仁)이며, 다른 사람 보기를 자기와 같이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공(公)이다.”

이렇게 중국의 삼교가 발생한 순서와 그 기본적인 성격을 밝힌 후에 송 효종(孝宗) <원도변(原道辨)>의 “불교로 마음을 다스리고, 도교로 몸을 다스리며, 유교로 세상을 다스린다”, 무진(無盡) 거사(장상영) <호법론>의 “유교는 피부의 질환을 치료하고, 도교는 혈맥(血脈)의 질환을 치료하며, 불교는 골수(骨髓)의 질환을 치료한다”, 이사겸 거사의 <내덕론>의 “불교는 태양[日]이고, 도교는 달[月]이며, 유교는 다섯 별[五星]이다”라는 유명한 구절들을 인용하고, “어찌 하늘에 삼광(三光) 가운데 하나가 결여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삼교 가운데 어떤 것 하나 결여될 수 있겠는가? 비록 그 우열은 있을지라도 치우치거나 폐함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그림 · 김홍인

이로부터 거사는 유가를 이른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그 ‘궁극적 공능’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의 ‘궁극적 공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도교의 가르침은 나의 몸으로부터 유명(幽冥)에 통하고, 인간(人間)으로부터 천상으로 초탈하며, 산림의 골로부터 아득한 대라(伏羲)와 높고 큰 금궐(金闕)에 이르니, 범부를 초월해 성인(聖人)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러나 만약 천지조화의 밖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 장생(長生)까지가 도교의 극공이다.” 이로부터 거사는 도교의 ‘궁극적 공능’을 단지 ‘장생’의 완성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불교의 ‘궁극적 공능’에 대해서는 불교의 거사답게 상당히 길게 논하고 있다. 우선, 불교의 전체적인 우주관을 ‘삼천대천세계’로 설명하고, 다양한 세간과 출세간의 법설(法說)을 소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처님은) 하늘중의 하늘이고, 성인중의 성인이며, 위없는 범왕이고 정등정각(正等正覺)이다. 따라서 모든 방편을 초월해 십력(十力)을 이루고, 또한 법계의 모든 유정을 도탈(渡脫)시키니, 불교의 극공은 이와 같을 뿐이다.” 이로부터 거사가 제시하는 불교의 ‘궁극적 공능’은 유·도 양교와는 다르게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교에 대한 ‘만약 사해와 육합의 밖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도교에 대한 ‘만약 천지조화의 밖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유·도 양교의 ‘궁극적 공능’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사의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거사가 삼교의 우월은 바로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이 엿보인다. 거사는 유·도 양교를 모두 ‘세간법’으로 귀결시키고 있는데 반해 불교는 ‘세간법’으로 시작해 출세간법으로 귀결함을 강조하고 있음이 돋보인다. 또한 “삼교는 세간법에 있어서는 모두 뛰어남”을 지적하고 있지만, ‘출세간법’에 있어서는 오직 불교만이 ‘궁진(窮盡)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 불교로 마음, 도교로 몸, 유교로 세상 다스려

### 삼교 중 ‘궁극적 공능’ 불교만 한계 설정하지 않아

에는 유밀 거사의 전기가 실려 있지만, 거사의 호가 ‘정재(靜齋)’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삼교평심론>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전부이다. 다만 <삼교평심론>에 “정재학사류밀전(靜齋學士劉謚撰)”이라는 저자 표기와 왕제왕(帝王)·명신(名臣)·거유(巨儒) 등의 전기를 모은 <불법금량판>에 전기가 실린 것은 류밀 거사가 원대의 사대부 출신임을 추정케 한다. 또한 관련된 기록을 종합할 때, 이 논서는 대체로 원(元)의 영종(英宗) 지지(至治) 연간(1321~1323)에 찬술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삼교평심론>의 내용으로부터 원대 거사불교의 사상적 성향을 소개한다. 류밀 거사의 <삼교평심론>은 앞서에서 삼교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밝히면서 시작된다.

“중국에 삼교가 있게 된 것을 살펴보면, 복희씨(伏羲氏)가 팔괘(八卦)를 그림으로부터 유교가 시작됐고, 노자가 <도덕경>을 지음으로부터 도교가 시작

내린다.

이는 불교에서 제창한 역대의 삼교관계를 근거로 삼교가 사회에 모두 존재할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이어서 거사는 다음과 같이 삼교의 특징을 들어 삼교가 모두 필요함을 논술한다.

“유교는 중국에서 강상(綱常)으로써 인륜을 바로 잡고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을 밝혀 사방으로 통하게 해 어긋나지 않게 했다. 이로써 천지만물이 자리 잡고 자라게 했으니, 유교가 천하에 끼친 공(功)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진시황(秦始皇)이 유교를 제거하려 했으나 끝내 없애지 못했다. 도교는 중국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청하게 해 스스로 지키고 비약(卑弱)으로써 스스로 보전하게 하니, 어지럽고 요란한 습(習)을 단번에 씻어 정무(靜無)한 무위(無爲)의 경계로 돌아가게 하니, 도교가 세상에 도움을 준 것은 지극하다. 그러므로 양무제(梁武帝)가 도교를 제

거하려 했지만 끝내 제거하지 못했다. 불교는 중국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려함을 버리고 실상(實相)에 나아가고, 헛됨을 떠나 참다움에 돌아가게 해 역행(力行)을 말미암아 안행(安行)을 짓고, 자리(自利)를 말미암아 이타(利他)에 이르게 하니, 붓 생명의 귀의처가 됨이 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삼무(三武)의 군주가 불교를 멸하려고 했으나 끝내 멸하지 못했다.”

양무제가 도교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것이지만, 거사의 이러한 삼교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삼교의 필요성과 특징을 논한 후에 거사는 이른바 ‘삼교평심’의 논리를 전개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일러 ‘평심(平心: 공평한 마음)’이라고 하는가? 거사는 스스로 “내가 장차 삼교를 밝혀 분별한다면, 결코 사심(私心)으로 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애증(愛憎)의 마음으로 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오직 그 마음을 공평하게 해 그 극

공(極功)을 논한다면 명확히 얼음이 녹듯이 될 것”이라고 ‘평심’의 각오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로부터 삼교를 논함에 있어서 ‘궁극적 공능(極功)’을 논구해서 ‘삼교’의 우열을 제창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거사는 “그 극공으로 말미암아 그 우열을 살핀다면 변론하지 않더라도 분명할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사는 삼교의 ‘궁극적 공능’을 어떻게 논하고 있는가? 거사는 먼저 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유교의 가르침은 자신의 한 몸으로부터 한 가정에 이르고, 한 가정으로부터 한 국가에 이르고, 한 국가로부터 사해에 이르러 육합(六合)에 가득 차니, 그에 따라 지키는 것은 간략하지만 베품은 넓다. 그러나 만약 사해와 육합의 밖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로써 세상의 교화를 도와 태평을 이룩한다. 그래서 공이 이루어지고 몸이 늙으면 청사(淸史)에 남게 되니, 유교의 극공은 이와 같을 뿐이다.”

이러한 <삼교평심론>의 의도는 말할 것도 없이 삼교 가운데 불교가 가장 뛰어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유·도 양교를 포섭해 삼교일치의 기치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논리과정에 류밀 거사는 스스로 ‘공평한 마음(平心)’을 강조해 ‘삼교평심론’이라는 제명을 달고 있지만, 이미 불교를 최고의 가르침으로 상정하고 논리를 전개한 힘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참답게 불법의 진리를 체득한 거사라고 한다면, 조금의 ‘사심(私心)’과 ‘애증(愛憎)’을 개입시키지 않은 ‘공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삼교의 우열을 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삼교평심론>은 1000여 년이 넘는 삼교관계의 논의를 종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상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 김진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불자 정보

755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

####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북구 호계동 신시가지 2만세대 아파트단지 들어섬
- 3층 중 2층 ● 평수: 총 60평 중
- 법당 25평, 방3, 큰방1 주방 大1, 거실, 화장실, 에어컨 2대
- 삼존불 모셔져 있고 탕하 있음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4천만원 중 600만원만 받겠습니다

010-6553-2828

---

#### 포교원(금)안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 평수: 61평
- 아미타불 원불 150불, 지장보살 50불, 관세음보살 276불
- 큰방1, 작은방2, 주방 1
- 건물: 8층건물에 4층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4천5백만원

031)972-1080 010-8558-9317

####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의령군 화정면
- 대지 300평, 건물
- 목조 황토집 40평
- 임법당 운영중
- 가액: 1억 5천만원

011-578-3175

---

#### 사찰 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동부산대학원
- 평수: 42평, 1층 요사채, 방3개, 거실
- 2층법당 17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가액: 1억 4천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비품(시설비) 1,200만원

011-9395-9411

#### 절터 안내

- 위치: 경남 함천군 덕곡면
- 실버타운, 낱골당 최적
- 낙동강 포구마을
- 평수: 7700평
- 가액: 평당 3만원

011-827-3399

---

#### 월출산 토굴 안내

- 위치: 월출산(바라보는 수려한 동내위에 한가한 곳)
- 평수: 대지 250평, 전236 총 486평. 평지임
- 벽돌 스타일 건물 약 40평(임법당) 창고 10평
- 남향, 주차장, 텃밭, 잔디정원과 연못이 있음
- 읍내 7분거리 국도2분거리
- 가액: 1억 5천만원

061)471-9688 010-3558-1674

---

#### 양도합니다

경관 좋은 경주 남산

악불암 011-9375-2747

## 사찰 대출 안내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죽도2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사찰은 주로 공시 시가가 낮고 일반인의 눈으로 단청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사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금고는 오랜 경험과 사찰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민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개발과 회원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 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 약 60만원 ◀

- 대출형식: 담보대출
- 대출금액: 5천만 ~ 5억
- 대출금리: 연 7.2%~8.2%
- 대출기간: 5년(연장가능)

죽도 2동 새마을금고 본점전경

■ 담당직통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 과장: 김삼민 016-9314-2522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사찰 담보 대출 전문

전국 가능  
금리년 6.7%~

사찰 거래 자금 대출  
기타 부동산 담보 대출  
사찰 거래 가능

문의 1600-9342 019-9004-9342

모기지 24  
www.mbs24.co.kr